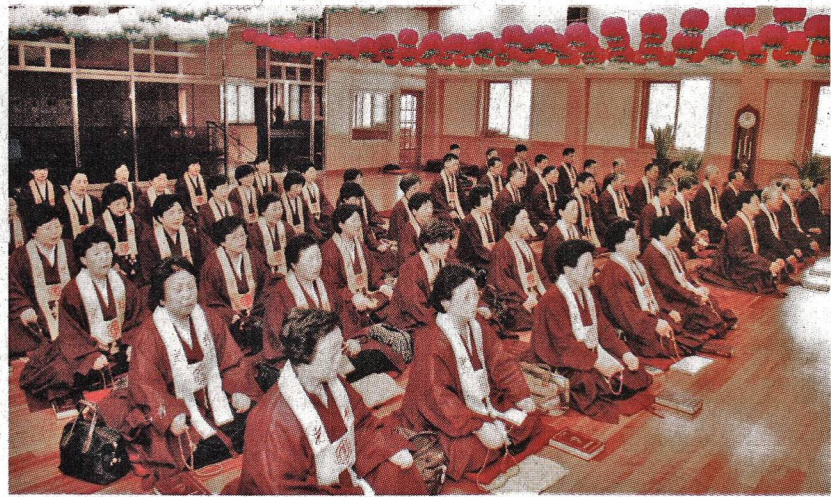




총지종, 제75회 춘계 강공회 19일부터 종단운영 발전방안 논의



▲ 강공회 개강불사 모습

불교총지종(총리원장 지성)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총리원에서 제75회 춘계강공회를 개최한다.

강공회에서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결산을 심의 결의하고, 종단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춘계강공회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를 필두로 복지재단, 중앙종의회, 승단총회 등의 주요 일정으로 진행된다.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과년도 총리원, 전당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를 비롯해 유지재단 이사 선출, 감사선출, 등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복지재단 회의에선 결산 심의와 함께 임원선출 이사 건, 등의 토의가 열린다.

이와함께 중앙종의회에선 지난해 총리원, 전당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를 비롯해 종단 산하 각 기구 임원의 선출 추천 건, 등의 안건을 상정 처리한다.

이밖에 승단총회에선 각 기구 임원 선출과 종단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총지종은 이번 춘계강공회에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종단운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 종단중흥의 시금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성 총리원장, 교계기자간담회 개최 국제불교센터 등 임기중 역점 추진 사항 밝혀



▲ 3월 29일 열린 기자 간담회

지성 총리원장은 3월 29일 서울 역삼동 총리원에서 임기 중 종단 운영과 관련해 교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성 총리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우리 종단은 화합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

기에 격정하지 않는다"며 "선임 원장님들과 스승님들의 공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성 총리원장은 국제불교교류센터 관련 질문에서, "컨벤션

시설과 공연장이 부족한 교계 현실을 감안해 총지종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이라 언급하고 "종단의 이러한 노력과 '97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는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 등이 배경이 돼 이명박 대통령 대선 당시 국제불교교류센터 건립이 불교계 공약 사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성 원장은 또 "현 역삼동 총리원 부지 약 900평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센터 유치를 위한 여러 여건들을 마련하고 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난 달 교계 각 종단 총무원장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성 총리원장은 복지 관련 질문에서 "종단 소유 70여만평의 과산부지를 범종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며 "200여평 규모 하우스 등을 여러 동 건립하여 각종 유기농 채소와 작물을 재배하는 생활 공동체와 이를 토대로 하는 노인 복지시설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화활성화와 어린이 청소년 포교, 종단법규 개정 보완, 복지, 도제 양성 등 다양한 주제로 교계 신문과 방송 기자들이 질문하고 지성 총리원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다.

간담회 말미에선 총무부장 인선 정사와 법장원 보정 박사가 종단 운영과 국제불교교류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보충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우재 기자

바라밀아동센터, 다목적교실 지원금 유치 '기능보강 신청사업' 제안서 선정



▲ 바라밀 아동센터 캠프 활동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지역아동센터(센터장: 도현)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을 받는다. 사랑의 열매에서 주관하는 '기능보강 신청사

업' 제안서가 선정된 것.

지원금은 총 14,596,920원으로 여기에 종단 사회복지재단부담금 약 970여만원을 추가해 아동시설을 증축한다.

사업 제안 내용은 다목적교실 '우당탕탕우리공부방' 증축과 관련한 것으로 유류지로 남아 있는 아동 놀이터 부지에 다목적 교실을 증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신체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체육, 요가, 국악, 음악, 미술 교실 △정서 안정과 건강한 인격 형성을 위한 다도교실 △안전 사고 예방 및 보호 △독서공간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이다.

다목적교실이 들어설 아동 놀이터는 시설이 노후되고 위험해 철거하자는 의견이 있어 왔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는 다목적교실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실

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센터장 도현 정사는 "센터 아동들은 물론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아동교육문화 발전과 종단 위상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목적교실은 시공시한인 금년도 중으로 건립할 예정에 있으며 구체사항은 현재 센터와 구청간 조율작업 중에 있다.

부산 정각사 내에 위치한 바라밀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소속으로 2개의 대강의실과 강당, 식당, 컴퓨터실, 사무실 등의 시설이 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초등학교 재학 중 아동은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나라안녕, 부국강병" 기원

불교총지종은 4월 8일 전국 사원에서 총기 39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 불사를 봉행했다.

종조법설집에는 "49일 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국가 발전과 호국에 있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라고 설명해 있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총기 49년 지난 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그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으며,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실시된다. 올해 하반기 49일 불공은 내달 28일 일제한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가 과학의 달을 맞이해 과학상상그리기 대회 동해중 대표 화가 선정 예선심사를 개최했다. 2학년 황성운 군이 선출됐다.

종조법설

진언공덕(眞言功德)

불보살의 진실한 말 무형한 법체의 진리를 총집약한 것이 진언(眞言)이다. 그러므로 정신화자가 그 뜻을 모르고 염송해도 공덕은 그대로 나타난다. 염송하는 사람이 진심(眞心)으로 하는 것과 싫어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법설집 1장 P50

제75회 춘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 방안을 논의 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9년 4월 19일(월)~4월 23일(금)
- 장소 : 불교총지종 총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지성



진언수행의 길 자성일 불공

자성일 불공이란 세간에서 말하는 요일 가운데 일요일에 불행하는 법회를 말한다. 자성일 불공의 의미는 나의 본성, 즉 '자성(自性)'을 찾는 불공'이란 뜻이다. 일요일을 자성이라 한 것은 대승불교의 실천행인 육바라밀다(六波羅蜜多)를 요일별로 배대하였을 때 마지막 일요일은 자성을 찾는 날, 즉 깨달음을 얻는 날이 된다.

월요일은 보시(布施)의 날, 화요일은 지계(持戒)의 날, 수요일은 안인(安忍)의 날, 목요일은 정진(精進)의 날, 금요일은 선정(禪定)의 날, 토요일은 지혜(智慧)의 날이다. 지혜를 닦아 이룬 다음이 무언인가! 바로 지혜의 완성, 자성을 깨닫게 되는 날인 것이다. 그래서 본 종단에서는 일요일을 자성일이라고 하고 자성을 이루는 불공이므로 '자성일 불공'이라 한 것이다.

조조남께서 이르시기를, "자성일 하루 불공하는데 옛세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자성일 하루 불공을 하지 않으면 육일 동안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하셨다.

자성일 하루 불공하는데 옛세 동안의 수익은 7일간 모두 일한 것보다 더 많아지고 또 안락하게 살며, 자성일 하루 일한 그 7일간의 수익은 하루 불공한 6일보다 오히려 적어지고 안락하게 살게 된다.

'자기 본성 찾는 불공' 일요일, 깨달음 얻는 날

자성일 불공의 의례식순은 불사법요(佛事法要)의 대중불사법요와 동참불사법요에 따라 행해진다.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2시경에 마친다. 첫째시간의 참회서원은 찬불가로 시작하고, 설법이 끝난 뒤 둘째시간의 참회서원은 낭송으로 시작하며 공식시간이 끝날 때 회향서원은 찬불가로 마친다. 공식대중불사가 끝나면 동참불공(同參佛供)으로 이어진다.

- ▶자성일이나 불공중에 지켜야 할 사항
- 부부간에 계행을 지킨다.
- 자녀의 결혼은 가능하면 이날을 피한다.
- 불공기간 중이나 자성일에는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건물이나 대지를 매입매각한다던지 하는 경우이다. 이미 이전에 기 시작된 일은 불공이나 자성이라 해도 계속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 대차관거나 중요한 결정은 이날을 피한다.
- 생일, 회갑, 칠순, 집안 행사일은 당겨서 행하거나 늦춰서 행한다.
- 불공 중이거나 자성일에는 특히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다투거나 수원심(讐怨心)을 갖지 않는다.
-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시시비비를 밝히려고 하지 말라. 밝히려고 하는 가운데서 원망심이 생긴다. 그럴 때는 상대를 위하여 회사하고 불공하며 오히려 내 허물을 찾는데 전념한다.

죽비소리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써 자신을 살피라 나가기.

<잡아함경>

총지사 자원봉사단 발족한다

16명 구성, 총본산 각종 행사 지원



▲ 서울 역삼동 총지사 전경

총지사 '총지자원봉사단'이 발 부회장 정인숙, 총무 최해선)들 속한다. 현재 16명의 교도가 가 이 교도들을 독려해 봉사단 구

입했으며, 조만간 발족식과 조출한 다과회도 열 게 확이다.

그동안 총지사는 종단의 총본산으로서 종단내외의 각종 행사와 외부 인사들의 접견 등이 많아 고 정적인 지원 일손이 필요 했다. 이를 절감한 현 총지사 임원진(회장 김은숙, 부회장 박정희,

성을 마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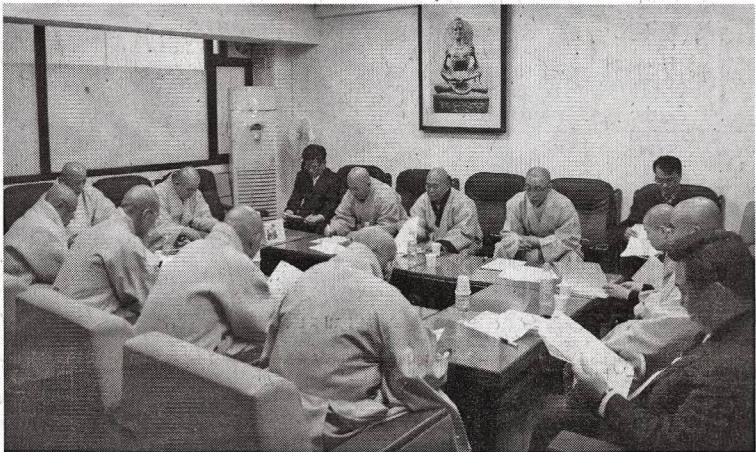
봉사단 발족식 후 단원들은 춘추계 강공과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 주방 봉사 등 각종 행사의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각 사원에서 개별 교도들이 비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오고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공식적인 자원봉사단 발족은 없었다. 향후 총지자원봉사단이 정착되면 자원활성화와 함께 종단 교화발전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지사 박정희 부회장은 "총지사는 종단을 대표하는 총본산으로 주기적으로 많은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종단은 물론 늘 의무의 이목을 받고 있다"며 "우리 총지사 교도들이 단합하여 봉사단을 운영하고 행사의 원만회향과 종단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윤우채 기자

한일불교協, 1차 상임이사회

지성 통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신임 상임이사 31차 교류대회 일본 연력사 등 논의



▲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3월 22일 오후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3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2010년도 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지종 지성 통리원장과 인선 총무부장이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개회상언과 성원보고, 주요안건 상정, 토의 등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31차 한일불교문화 교류대회 일본 연력사 건

을 비롯해 고문, 부회장 추대, 상임이사 임명비 건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한편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도쿄 연력사에서 개최되는 제 31차 교류대회에서는 일본 내 한국문화재 환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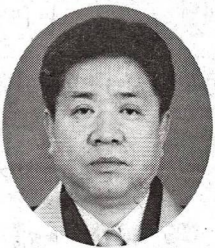
현재 일본 불교계는 한국 불교계의 문화재 환수 협조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

으며, 일본 불교계가 한국 불교계의 문화재 환수 노력에 동참할 경우 한일 양국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해 5월 13일 여주 신륵사 교류대회 당시 일본의 과거사 참회의 내용을 담은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신륵사에 세운 바 있다. 일본측은 비문에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한국의 역할과 양국 친선, 한국민에게 대대한 고 통을 끼친 사실에 반성과 참회의 염을 담았다.

올해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는 '양국 불교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세계 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한 후 양국 불교학자 학술대회를 갖는다.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불교계 대표단과 양국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역사(延曆寺, 엔라쿠지)는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지난 2002년 삼국 시대 후기 '해상 무역왕' 장보고 창건된 대사를 기리는 비가 세워진 곳이다.

총·전 교구장, 대전 백월사 범우 정사 선임



범우 정사

불교총지종 총정·전라 교구는 신임 총전교구장으로 대전 백월사 범우 정사를 선출했다. 범우 신임 교구장은 전임 지성 교구장 잔여 임기인 총기 41년 4월 26일까지 교구장 직무를 수행한다.

봉축행사 총지종 연회단 가동 봉축 등(燈) 제작도 박차



총지종 봉축 연회단이 올들을 선보이고 있다.

불기 2554년 봉축일정이 공식된 가운데 총지종도 봉축행사 연회단을 구성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현재 40여명으로 구성된 연회단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물동 연습을 하고 있다. 총지종 봉축행사 연회단은 지난 2007년도를 비롯해 지금까지 다섯 번 봉축행사에 참여해 종단 홍보를 해왔다.

이와함께 봉축등 제작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은 육자진언등에 이어 올해에도 월드컵 봉축등 같은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통리원 2층 반아실 리모델링 불사



서울 역삼동 통리원 2층 반아실 리모델링 불사가 한창이다. 통리원은 오는 19일부터 치러지는 제75회 강공 전까지 불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3일경부터는 1층 중무실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알림방

- ▶ 5월 3(월)일부터 9(일)일까지 월초불공을 봉행합니다.
- ▶ 5월 16일(일) 동국대 운동장과 종로 일대에서 연등축제가 열립니다.
- ▶ 서울 동대문 밀인사(주교: 원당)는 4월 14일 강원도 주문진 일대에서 방생법회를 개최했다. 교도들은 돌아오는 길에 지난 2005년 화마로 소실됐다가 복원된 관음 기도처 낙산사를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1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성사	정정희	3/10	10,000
관성사	조정숙	3/24	10,000
관성사	황성녀	3/26	10,000
관음사	신막심	3/9	10,000
관음사	신막심	3/23	10,000
개천사	무명씨	3/5	10,000
개천사	윤 찬	3/18	10,000
개천사	이희권	3/25	10,000
기로원	대 관	3/25	10,000
기로원	대자행	3/25	10,000
기로원	밀공정	3/25	10,000
기로원	법수원	3/25	10,000
기로원	법장화	3/25	10,000
기로원	법지원	3/25	10,000
기로원	불멸심	3/25	10,000
기로원	사홍회	3/25	10,000
기로원	상지화	3/25	10,000
기로원	수증원	3/25	10,000
기로원	총지화	3/25	10,000

단음사	정효명	3/10	10,000
단음사	우경화	3/10	10,000
단음사	범연지	3/19	5,000
덕화사	김정애	3/16	10,000
만보사	조덕남	3/25	10,000
만보사	정덕순	3/26	10,000
밀인사	정정희	3/2	5,000
밀인사	이혜성	3/2	20,000
밀인사	이재갑	3/9	20,000
밀인사	묘심해	3/15	10,000
밀인사	원 당	3/15	10,000
밀인사	이혜성	3/18	20,000
밀인사	이재호	3/26	20,000
밀인사	정정희	3/31	5,000
밀행사	석우성	3/2	20,000
법천사	지 정	3/25	10,000
법천사	원만원	3/25	10,000
법천사	박말조	3/25	5,000
벽룡사	양정현	3/16	10,000

벽룡사	양지현	3/16	10,000
백월사	박인국	3/2	5,000
백월사	박인철	3/2	5,000
백월사	이갑진	3/25	10,000
백월사	박인철	3/29	5,000
백월사	박인국	3/29	5,000
삼밀사	원 송	3/25	10,000
삼밀사	인법계	3/25	10,000
선립사	심지장	3/18	10,000
선립사	정복지	3/18	10,000
선립사	황귀석	3/18	10,000
성화사	우대희	3/16	50,000
수인사	장영택	3/3	50,000
수인사	김봉기	3/29	10,000
실보사	송희준	3/4	10,000
실보사	이순옥	3/23	5,000
실보사	해 정	3/30	10,000
실보사	정법계	3/30	10,000
실지사	송우섭	3/4	5,000

실지사	정우석	3/10	10,000
실지사	이화수	3/17	10,000
실지사	정경자	3/31	5,000
자석사	이판도	3/11	20,000
정각사	김문수	3/11	20,000
정각사	박수빈	3/19	10,000
정각사	구정희	3/17	20,000
제석사	안지환	3/2	500,000
제석사	이운재	3/2	200,000
총지사	이인성	3/3	30,000
총지사	박계숙	3/3	20,000
총지사	홍연수	3/9	10,000
총지사	최해선	3/22	20,000
총지사	법수연	3/22	10,000
총지사	록 경	3/22	10,000
총지사	선도원	3/22	10,000
총지사	이연수	3/25	10,000
총지사	이인성	3/29	30,000
총지사	박계숙	3/29	20,000

회음사	송하나	3/11	20,000
회음사	송호영	3/11	20,000
회음사	하향숙	3/17	20,000
해정사	최영례	3/15	10,000
해정사	조성기	3/29	20,000
흥국사	지 정	3/25	20,000
	김종철	3/11	50,000
	류승태	3/10	10,000
	무명씨	3/4	10,000
	목영애	3/15	20,000
	안효정	3/29	20,000
	이규성	3/5	4,000
	이숙남	3/11	30,000
	이혜원	3/2	5,000
	이희원	3/30	10,000
	이혜원	3/30	5,000
	정인순	3/23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의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풍경소리

제대로 놓여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느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느낀다.
분노와 사랑은 말뿐이다.
말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말에 우리는 묶여있다.
말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성운스님(삼천사 주지)

속아서는 안될 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잘못 놓인 그릇에는 물이 담길 수 없고 가랑비가 내려도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물이 고입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씩 자신의 마음그릇이 제대로 놓여있는지 확인해 볼 일입니다.
원철스님(경학자)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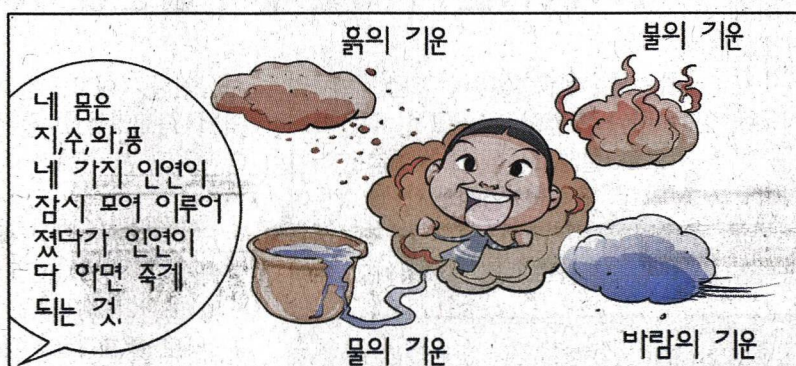
미술사는 사람들의 '연상심리'를 이용해서 여지없이 관중들을 속여 넘깁니다.
관중들 또한 눈앞에서 보면서도 속게 되지요. 중생의 삶 역시 아무리 정신을 차려 눈을 씻고 보아도 모든 것은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욕망을 내어 집착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미술사의 동작에 속지 않는 것처럼 진리를 바로 깨친 사람은 욕망을 다스릴 줄 압니다.
라대현(재가 수행자)

이달의 명상



가정에 참 부처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 참된 도가 있다
사람이 능히 성심을 가져 화평한 기운으로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고 말씨를 순하게 하여
부모 형제가 서로 화합하고 뜻이 통하게 된다면
숨을 고르고 마음을 관하는 것보다 만 배나 더 하리라.
-채근담萊根譚

家庭有個眞佛日用有種眞道(가정유개진불 일용유종진도)
人能誠心和氣愉色婉言(인능성심화기유색 완언)
使父母兄弟間形骸兩釋意氣交流(사부모형제간형해양석의기교류)
勝於調息觀心萬倍矣(승어조식관심만배의)
-채근담萊根譚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22p

꿈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창 조
협 동
경 애
교 목 보리수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만다라의 복지세상 ①

현대사회, 근기 따라 다양한 포교 방법 필요(2)

▶ 특수계층포교

특수계층은 총체적 측면에서 특수한 계층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조건 또한 특수한 경우다. 대표적인 예로 군인과 경찰, 재소자, 환자, 새터민, 외국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군대는 70만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든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며 생활

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렇듯 특수한 삶의 조건 때문에 이들은 다른 어느 계층보다도 종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계층이다.

또한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한정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계층 구성원의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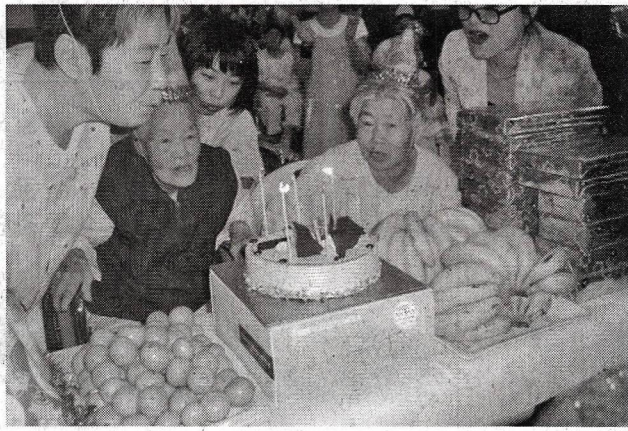
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집에서 포교의 후방효과를 매우 큰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볼 때, 경찰포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교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방방이나 봉사 및 불교행사 지원 등 종단의 매우 중요한 외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포교의 현실도 다른 종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교 인력의 대대적인 확충과 군종특별교구처럼 경찰청교구를 신설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포교활동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재소자포교, 환자포교, 새터민포교, 외국인포교 등은 매우 중요한 특수계층포교이다. 이들은 분야의 포교는 타 종교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수계층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 치매노인들의 생신 파티

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복지포교

• 복지포교의 사상은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1) 복지포교의 근본사상은 연기사상, 지비사상, 평등사상, 생명존중사상이다.

2) 연기사상은 모든 복지포교의 출발점...개개인의 자발성에 기초를 둔 사회적 연대를 실현시키는 근본사상이다.

3) 존재론적 논리인 연기사상이 행위론적 차원에서 발현된 것이 자비

“복지포교 근본사상은 연기사상”

“행위론적 차원에서 발현된 것이 자비”

서는 특수계층 각각을 전담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전담할 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특수계층포교를 체계적이고 조직

사상이다. <대지도론>에는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하고 종단을 자비의 문중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대지도론>에서 말한 3가지의 자비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중생연(衆生緣) 자비- 일체중생을 부모 형제의 인연을 가진 존재로 여겨 고통을 제거해주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자비행

2) 법연(法緣) 자비- 온갖 법이 거짓으로 모인 것임을 알고, 물심의 본체가 공한 것임을 알아서 무명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진 중생들에게 발고여락(拔苦與樂)하려는 자비행.

3) 무연(無緣) 자비- 중생연이나 법연이라는 분별조차 버리고 아무 연고 없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절대적 자비행.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군인 경찰 재소자 환자 외국인 등
생활조건 특수한 이들 대상

조건이 매우 특수하다. 게다가 군인으로서의 특수한 교육과 훈련이 향상 뒤따르는 곳이다.

경찰의 경우 연령이나 삶의 조건에서는 군대와 조금 다르지만 독특한 규율속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재소자의 경우, 철저히 외부사회와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감시와 윤리적 교화가 수반된다.

병원의 환자의 경우, 사회와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지만 환자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병실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복지 수혜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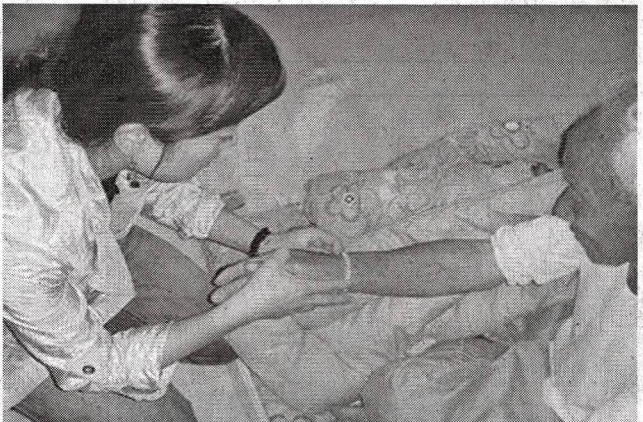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의 다른 정체성과 문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한국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특수계층으로 새터민(탈북자)포교도 이와 비슷한 부류에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다. 이

교의 황금어장에 비유되는 계층이기도 하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각 종교는 특수계층에 대한 선교에 적극 뛰어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군장병 포교는 소요 경비의 부족과 시대변화에 맞는 포교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군장병 포교를 활성화하는 지름길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군종특별교구에서 조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찰은 군대의 포교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군대와 달리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포교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경찰은 민간생활과



▲ 노인 환자 수발



자경단(子經丹)

총양칠환
자궁근종
생리불순
복심 자궁어혈 제거

여성美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자궁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총지동의보감

요실금



조선화 원장

(여성美 한의원)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는 배뇨이상으로 사회적 활동 또는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기 여성인구의 30% 정도에서 요실금을 호소하며, 노인층에서의 발생빈도는 더욱 높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방광 근육이 비대해지고 방광벽이 두꺼워

3. 반복적인 출산과 수술, 유산, 폐경으로 방광을 비롯한 자궁, 요도, 골반근육이 이완되어 발생하는 경우

4.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긴장상태로 기혈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방광 및 소변배출기능이 무력해 질 경우

치료는 하복부에 위치한 방광, 자궁 및 장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운을 보강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약해진 간, 심장, 신장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충약기탕, 음식지향탕, 신기환 등의 처방을 활용합니다.

또한 외치법으로 사상자, 임모초, 속 등의 약재를 끓여 그 기운을 질 내로 쏘여 주거나 세정을 하는 좌훈욕과 한방좌약 등을 이용하여 질 내에 삽입함으로써 수축력과 방광 및 생식기능을 회복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중년기 여성인구 30% 증상

골반 근육운동 도움대

저서 방광의 확장 능력이 감소하게 되며 특히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 또는 수술 등으로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골반근육과 방광이 처지거나 폐경이후 요도와 방광의 혈관들이 위축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생리적인 면으로 남성의 1/4밖에 되지 않는 짧은 요도길로도 요실금의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대변의 충추 기능이 저하되어 방광 충만감을 감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낀 후 소변을 볼 적절한 장소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요실금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1. 선천적으로 신기(腎氣)가 허약하여 방광과 주생생식력이 약해져 발병하는 경우
2. 평소 하복부가 냉하거나 하체가 약해 방광 결속력을 저하하는 경우

• 요실금예방법

1. 골반근육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2.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갖는다.
3.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알콜, 카페인 함유제품, 초콜렛, 탄산음료, 설탕, 인공조미료, 신과일주스 등)이나 이뇨 효과가 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
4. 변비가 있을 경우 복압상승의 요인이 되어 방광을 자극하면서 요실금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5. 흡연으로 인해 과도한 기침을 하게 되는 것도 요실금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비만의 경우 복부지방으로 인해 복압이 상승하거나 골반근육이 약해져 요실금을 유발하므로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한다.

기사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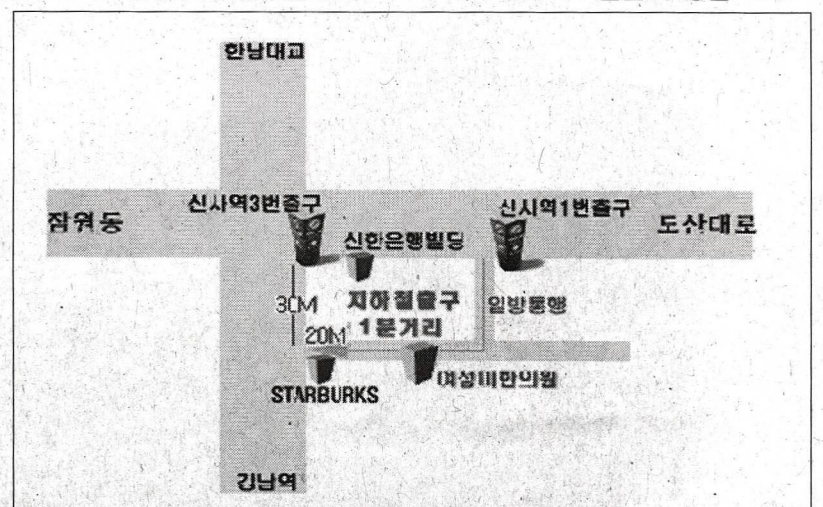
총지정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 bota32@hanmail.ne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아TV “전문의 상담”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매일 정시법(定施法) = 탐업소멸법(貪業消滅法)



법 공

기로스승

전월에는 재시(財施)와 관련해 총지종 특유의 삼중재시 회사법 중 절당회사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그 공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그 두번째 회사법인 매일 정시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② 매일정액회사(每日定額喜捨)
-정시법(定施法)

이 회사법은 매일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행하는 회사법으로 행자가 각자의 형편(경제력, 회사심)에 따라 하는 실천법입니다.

♣ 의미

현시대는 물질주의 시대 즉 물질이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매일 물질과 불가분의 관계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 다. 그래서 원정 종조법에서 이 점을 예견 하시고 다음과 같이 물심이원진리도(物心二元眞理道)를 말씀하셨습니다.

1) 땅에 솟는 맑은 물은 흐르는데 탁(濁) 해지고 못에 모인 탁한 물은 넘는데서 맑아 진다. 선천인사(先天人事) 순류처럼 맑은 끝 에 탁해지고 후천인사(後天人事) 역류같이

탁한 뒤에 맑아진다. 상공업을 주로하고 경제 발전 하는 때는 욕망에서 건설되고 건설중에 탁해진다.

2) 세상이 다 혼탁한데 홀로 청백 안되나 니 율게 써서 정화하라. 수입할 때 못가리니 독(毒)이 화해 감로된다. 제독(除毒)위해 정 시하며 정화(淨化)위해 정시하니 탁한 수입

한 물질을 정화하고 독성있는 재물을 제독하 여 씬으로써 지혜로운 경제생활의 용재법(用財法)이 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훌륭한 매 일작복(每日作福)의 보시법이 되어 일거양득 의 물도묘덕(物道妙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보시(布施)를 가르치고 권하지만

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무겁고 큰 업장을 녹이 기 위해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회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총지종의 정시법이야말로 확실 하고 매우 수승(秀勝)한 작선(作善) 수행법 이라 하겠습니 다. 탐업을 녹일 뿐만 아니라 복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복(薄福) 중생이 복업(福業) 짓는 것은 마치 모래벌에 서 사금을 캐듯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부 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중생작복(衆生作福)이 억지작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 들이 복 짓는 모습을 보면 작은 복업도 자발 적으로 짓지 못하고 묶어 끝없이 강권(強勸) 해야 억지로 조금 짓고 인장과 체면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게나마 선업을 짓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런코로 우리 총지종의 매일 정시법이야 말로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 는 비길데 없이 수묘(秀妙)한 탐업소멸법(貪業消滅法)이며 매일작복이며 무진공덕이 되 는 훌륭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실천

확실하고 수승한 작선법(作善法)

악(惡) 아니라.

표면에는 자유경제 혼탁한 것 같지마는 이 면에는 자유종교 정화기관 되어 있다. 세상사 랑 수단으로 재물수입 하지마는 삼밀행자(三密行者) 정시(定施)해야 인무진(因無盡)에 수입된다.(종조법설집, 물과 심의 이원원리)

이상과 같은 종조법의 법어를 보더라도 혼 탁한 이 물질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탁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극히 간헐적이 며 어쩌다 인연 닿으면 하게 되고 혹은 일년 중에 몇 번 내지 한 두번, 그것도 자의반 타 의반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 중생은 한량없는 과거세로부터 오느 에 이르기까지 익히고 쌓은 탐업(貪業)이 산 과 같고 바다 같아 그 업장(業障)으로 해서 좀처럼 스스로 기꺼운 마음으로 보시행을 하

◇ 비를 뿌리려거든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밭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나는 마히 강변에서 처자와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방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 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 리소서."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의 두터운 미혹을 벗어 버렸다.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움막은 드러나고 탐욕의 불은 꺼져 버렸다. 그러니 신 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 서."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모기나 쇠파리도 없고 소때는 늪에 서 우거진 풀을 뜯어 먹으며 비가와도 견디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 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땀땀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 거센 흐름에 끄떡없이 건너 벌레 피안 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땀땀이 소 용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 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내 아내는 온순하고 음란하지 않습 니다.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마음 에 듭니다. 그 여자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해탈해 있다. 오랜 수행으로 잘 다스려졌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점도 있지 않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 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합니다. 그 애들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 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고용인도 아니다. 스스로 얻은 것에 의해 온 누리를 걷 는다. 남에게 고용될 이유가 없다. 그 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소를 매놓을 말뚝은 땅에 박혀"흔 들리지 않습니다. 문자 풀로 끈 재 밧 줄은 잘 꼬여 있으니 송아지도 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 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부처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소처럼 고삐를 끌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았으니, 나는 다 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 서."

이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엄청난 양 의 비를 쏟아내 골짜기와 언덕에 물이 넘쳤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 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큼니다. 눈이 있는 이 여, 우리는 당신께 귀의하오니 스승이 되 어 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행복한 분 곁에서 청 정한 행을 닦겠습니다. 그러면 생사가 없는 피안에 이르러 괴로움을 없애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악마 파파인이 말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 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 뻐한다. 사람이 집착하는 근본은 기쁨 이다. 집착 할 데가 없는 사람은 기뻐 할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 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격 정한다. 참으로 사람들의 근심은 집착 에서 생긴다. 집착이 없는 이는 근심 할 것도 없다."

(경집經集)

라한은 탐하고 아끼는 생각이 없습니 다. 항상 깨끗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기를 좋아하며, 무엇이든지 주 면서도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셋째, 음행하지 마시오. 아라한은 음 란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성에 대해 부정확한 생각을 내는 일이 없고 청정한 마음으로 항상 정진을 즐깁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마시오. 아라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항상 진실하여 조용히 하는 말은 그 마음과 같이 법에 맞으며 거룩한 말에는 거짓 이 없습니다.

여덟째, 제때 아니면 먹지 마시오. 아라한은 법답게 먹는 시간을 지켜 정 오에 한 때만 식사하며, 양에 맞추어 적게 먹고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않습니 다.

이 여덟 가지 계법(戒法)은 온갖 나쁜 짓을 막는 문이며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출가 수행승이 되어 도를 닦는 이들은 평생을 지키지 만, 세속에 있는 신도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하루낮 하룻밤 동안만 을 지키는 것입니다. 삼장제월(三長齋月)인 일월, 오월, 구월 달에나 육제일(六齋日)인 여드레, 열 나흘, 보름, 스 무 사흘, 스무 아흐레, 그믐날이라도 깨끗하게 받아 지키면 그 복덕은 열 여섯 나라의 보물을 모두 한 곳에 쌓 아 두고 혼자서 수용하는 것보다 더 를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신성들이 항상 보호하므로 온갖 재앙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지혜의 길은 장엄하며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재경齋經)

◇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원래 자체가 없는 것인데, 화합하여 형상을 이루었으니 사실은 헛것이며, 네 가지 인연이 거짓으로 모여 육근(六根)이 있게 된 것이요. 육 근과 사대가 안팎으로 합하여 이루어 졌는데 반연하는 기운이 허망하게 그 안에 모이고 쌓여 반연하는 것이 있는 듯한 것을 이룸하여 마음이라 한 것이 오. 이 허망한 마음도 육진(六塵)이 없 다면 있을 수 없고 사대가 흩어지면

(원각경 보안보살장 圓覺經 普眼菩薩章)

진리의 여울

◇ 팔관세계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뭇히 동쪽 으로 가시다가 한 신도의 집에 들렀 다. 유아라고 하는 신도는 여러 부인 들과 같이 목욕 재계하고 부처님께 예 배드린 후 지극한 마음으로 설법해 주 시기를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사 람들에게 큰 복이 되고 좋은 공덕이 될 여덟 가지 재계(齋戒)의 법을 설하 셴다. 하룻밤 하룻낮 동안만이라도 번 뇌가 없는 아라한(阿羅漢)처럼 생활하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첫째, 산목숨을 죽이지 마시오. 아 라한은 산목숨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 습니다. 자비로 중생을 사랑하여 원망 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생명에 대해 내 몸처럼 여깁니다.

둘째, 남의 것을 훔치지 마시오. 아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마시오. 아라한 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는 어지러운 일이 없고, 생각에는 게 으름이 없으며, 밝고 바른 뜻에는 술 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섯째, 몸에 패물을 달거나 화장하 지 말며 노래하고 춤추지 마시오. 아라 한은 생각을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복이나 패물로 호사하거나 연 지와 분을 발라 화장하지 않으며, 노래 하고 춤추고 악기를 쓰는 일이 없으며 오락이라면 구경도 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마시오. 아라한은 몸을 편히 하기 위 해 높은 평상이나 좋은 자리에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 비단으로 된 이불자리 같은 것은 쓰지 않으며, 낮고 허술한 자리에 앉고 쉬며, 올바른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치매, 중풍,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가정처럼 포근한 만다라요양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부설 흥국사 만다라요양원은 10월 19일 개원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정처럼 포근한 자비와 사랑을 제공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전국 어느곳에서나 가능함.
(장기요양등급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
2등급: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 입소정원 : 6명 (선착순 입소함)

□ 본인부담금 : 1등급 : 40만원, 2등급 : 월 35만원

□ 연락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150-2, 흥국사

전 화 : 063-224-4358, 016-651-8053. 담당자: 지정 정사



세상사는 이야기

마음의 봄은 언제

계절이 길을 잃어버렸다.
봄의 시작인 3월도 한참 지나 봄의 중심에 있는 4월이 된지도 여러 날이 지났는데 봄은 올 생각도 하지 않는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겨울과 작별인사를 하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곁에 떠나 보내야 하는데 봄바람이 불지 않으니 떠나지 못하고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다.

꽃들은 저들이 먼저 알고 왔다투어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워 봄맞이 준비를 끝냈다. 봄을 기다리던 꽃들은 기다림에 지쳐 기운을 잃고 있다. 화창한 봄날 따뜻한 햇빛을 온몸으로 받고 환한 얼굴로 행복해하는 꽃들이 보고 싶다. 봄바람이라도 살랑살랑 불어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어 주면 수줍게 고개 숙이고 행복해 하는 꽃들도 보고 싶다. 오지 않는 봄을 기다리다 꽃들은 추위에 온 몸을 떨고 있다.

“봄아, 너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니? 빨리 길을 잘 찾아서 떨고 있는 꽃들을 따뜻하게 위로 해 주렴.”
떨고 있는 것은 꽃들만이 아니다.

자가 집 정원이나 햇볕을 쬐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고 찾아 가서 햇볕을 온 몸으로 받아 들인다고 한다.

지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의 축복받은 기후가 영국 기후를 닮다니. 미국의 어떤 곳은 우리의 반대로 봄인데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한여름이 찾아 왔다고 한다. 지구 곳곳에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과 해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지진은 예년의 79%정도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것도 진도 7 이상인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중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진에서 비껴가고 있어 축복 받았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안심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베란다 문을 열고 동쪽 하늘을 쳐다본다. 오늘 해가 힘차게 떠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를 눈부시게 비춰줄 것인지 가능해 본다. 동쪽하늘이 붉은 색이면 그날은 둥근 태양

기상이변, 대지가 보내는 경고

꽃같은 군인들 사고에 망연

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봄 웃음으로 단장한 아가씨들도 웃음을 세우고 잔뜩 움크리고 떨고 있다. 내게도 봄은 오지 않았다. 오늘도 난 도통한 웃을 입고 길을 나섰다. 추위를 싫어하는 나도 꽃들과 함께 봄을 기다리고 있다.

지구인들이 소중한 지구를 지키지 못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막 살아서 지구가 화가 난 것은 아닐까? 지구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온 우리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 지구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씨가 이상하다.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화창한 날씨는 며칠이 되지 않고 날마다 심술이 잔뜩 난 사람처럼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런 날에는 내 마음도 우울해 진다.

요즈음 날씨가 영국 날씨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에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날씨가 변덕스럽고 늘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이 거의 매일이라고 한다. 어쩌다 찾아오는 화창한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나

이 떠올라 그의 강렬한 햇살을 대지에 퍼부어 모든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

올 봄이 더욱 스산하고 추운 것은 느리게 찾아오는 봄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백령도에서 우리 군함이 사고가 나서 꽃 같은 우리의 아들이 실종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실종자들을 구출해 내는데 실패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든 사람의 희생도 있었고 사고해역에서 실종자들의 수색을 돕던 우리 어선과 어부들의 희생도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다 깊은 곳에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끔뎀 열어 버린다.

추운 날씨에도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었다. 하지만 꽃이 예쁘게만 보이지 않는다. 예전 같으며 이때쯤 꽃 잔치 하느라고 떠들썩 했는데 올해는 마음이 시리고 추워서 꽃들도 출제만 보인다.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포근하게 안아 줄 봄은 언제 오려는지? 내 마음의 봄은 또 언제 찾아 오려나?

-박묘정

불교설화 <42>

현대의 고승 중 제신 스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은사인 윤 포광 스님이 제주도에서 왔다고 하여 '제신'이라는 법명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 일본에 유학하여 대학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졸업 후 제주도로 돌아와서 하는 일 없이 지내자, 일본 경찰들이 요시찰 인물로 지목하여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집안 어른들이 적당한 색시가 있다며 결혼을 시켰고, 얼마 후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나무랄 데 없는 놈이야. 이 아이를 대통령감으로 키워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지' 아들에게 특별한 정을 느꼈던 그는 아이를 지극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웃도 최고급, 먹는 것도 제일 좋은 것들로만 사 주면서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잘 놀던 아이가 "아아" 하더니 탁 쓰러져서 영영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시체를 안고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우울증은 커졌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는 돈 백원을 주면서 여행을 다녀올 것을 권했습니다.

"금강산 구경이나 다녀오너라."
그러나 금강산을 가기는커녕 서울에서 내기 바둑을 두다가 돈 백원을 모두 날려 버렸습니다. 여차피 특별한 의욕이 없었던 그는 노동관에서 일도 하고 구경도 하며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저러 그의 발길은 묘향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넓은 감자밭을 일구며 토굴 살이 하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토굴에서 며칠을 붙어 살다가 스님과 조금 가까워지자, 그는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죽어 버린 것 일까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알아보는 것이야 간단하지. 7일만 잠 안자고 기도하면 금방 알 수 있어."
"정말입니까?"
"만일 그렇게 해서 기도성취 못하면 내 목을 베어라. 아니, 부처님 목도 떼어 버려라."
"좋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런데 평소 때는 그토록 잠이 없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자 잠이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졸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졸면 언제 나타났는지 주장자로 머리를 탁 때리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때리치워라 벌써 졸았으니 소용없어. 기도성취 보려거든 다시 시작해."
며칠 동안 졸고 혼나고 졸고 혼나기를 거듭한 그는 '먼저 잠안자는 연습부터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강동을 두드리며 감자밭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지만 졸음을 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윤희와 인과응보를 깨닫다

때는 발두령에서 떨어져 거꾸로 처박혔는데, 거꾸로 처박힌 채 잠에 골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깨어나서 보면 목이 통통 부어 있고..... 이렇게 갇은 고생을 하며 잠과 싸운지 42일째 되는날, 물건들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 등 시야는 흐렸지만 잠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스님의 지시대로 그는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숙았구나 부처도 관세음보살도 원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상의 목을 때렸으며 불단 앞으로 가다가 탁자에 소매가 걸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 아들이 그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안으려 하자, 아들은 허벅지 속으로 저만치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삽화: 정윤지

발걸음을 옮겨 겨우 다가가면 또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마침내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런 놈은 아예 죽여 버려야 한다. 저놈을 어떻게 잡아죽일까? 들맹이로 머리를 박살낸 다음 밭아 죽일까?'
이렇게 못된 생각까지 하다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차자. 아이는 "아아, 소리를 지르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개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뇌리로 일본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머물렀던 친척 아저씨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개는 그를 열심히 따랐을 뿐 아니라 말귀도 매우 밝았습니다. 산책을 갈 때도 극장구경을 갈 때도 개는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너는 극장에 못 들어간다.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엔 오너라."
그러면 개는 집으로 갔다가 그가 극장에서 나올 시간에 맞추어 다시 와서 좋다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리하던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통 먹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더 지나자 뼈만 앙상하게 남아 곧 죽을 것 처럼 되었습니다. 보기가 애처로워진 친척 아저씨는 개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개가 죽으면 재수가 없다. 상자에 실어서 교외로 가지고 나가 버려라."
할 수 없이 개를 담은 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교외로 나간 그는, 숲 속에 상자를 내려놓고 개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구나. 네가 죽을 병이 들어 밥도 먹지 않으니.... 여기 있다가 편안하게 죽어라"

순간, 개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일어서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개가 '앙'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습니다. 비실비실 쫓아오다가 쓰러지고, 쫓아오다가 쓰러지고....

어느덧 날도 저물어 교외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였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개는 그의 곁에 바짝 붙어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고는 못간다'는 듯이. 마침 바깥 마른 개를 축은하게 여긴 그 집 주인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 주었고, 이제까지 먹지 않던 개는 기운을 차려야겠다는 결심이나 한 듯 그곳까지 씹아 씹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도 된장국 한 그릇을 말끔히 먹고는 병이 나은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자 개는 죽을 힘을 다하여 쫓아왔습니다. 천천히 달리면 천천히, 빨리 달리면 빨리 쫓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미루나무에 기대 오줌을 누는 틈을 타서 자전거를 힘껏 몰았습니다. 최대 속력을 낸 결과, 그는 개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달이 지난 후, 그 개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학교가 파하고 돌아와 보니 개가 와 있었는데, 개는 섬뜩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고, 만지는 것도 옆에 오는 것도 허락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 정도 집에 있다가 개는 다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하, 그 개가 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 쫓겨진 마음의 양갈음을 나에게 하였구나....'
그는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가이산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뒤 제신 스님은 참선수행하여 높은 경지를 이루었고, 나이가 육십이 조금 못 되었을 때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으로 들어가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6년 동안 정진하였습니다. 그런데 6년을 며칠 앞두고 행방 불명이 되었습니다. 한 저서가 스님의 수행을 자랑한 답시고

TV인터뷰를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자취를 감추고 계신 제신 스님은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고한 학처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부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일이 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꼭 풀어야 할 일인데도 풀리지 않을때, 불보살님의 큰 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특히 잠을 자지 않고 하는 기도라면 기간은 7일로 족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고 해결해야만 할 간절한 문제가 있다면 잠을 자지 않고 7일 동안만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모든 매듭이 풀리고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일화

충지중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수행의 길에서

이기심은 가장 큰 마구니

자 인 행 (운천사)

이사 오기 전 부산에서는 제법 운전 전을 했었는데 이곳 마산에 와보니 운전이 엄두도 안 난다. 운전사 때문 앞을 나서면 좁은 길 양옆으로 차들이 뺨뺨하게 주차하고 있어 내 잘난 운전 솜씨로는 혹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차라도 한 대 오면 도저히 비껴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도시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골목마다 차들이 뺨뺨하게 도로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독 마산은 더 심한 것 같다. 큰길에도 갓 쪽 차선은 항상 주차한 차들이 주행 중인 차들을 방해하고 있다.

얼마 전 조금 늦은 시간에 정사님과 함께 집 근처 대형할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사원으로 돌아오는데 운천사 입구 우회전 길에 왼쪽에는 학원 버스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학원

승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운전 경력 25년이 넘는 정사님도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 그 길을 지나 빙 둘러 우리 사원에 들어왔다. 주차 공간이 없어 길옆에 주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남들이야 지나가든 말든 내차만 주차해 놓으면 그만이라는 자신만 생각하는 중생들의 이기심 가득한 모습을 본 것 같아 매우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이기심은 마치 바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우리중생들의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어 도무지 뽑아내거나 잘라 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들은 자신의 이익과 입장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시작되는 이기심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다투고, 화내고, 그리고는 다름을 벌인다. 조그만

이기심 그것만 버리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스스로 속박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주위사람에게까지 폐를 끼치고 만다.

불가(佛家)에서는 무엇보다 화합을 강조한다. 화합함에 있어 수순과 양보는 최우선 덕목이다. 일상생활에서 서로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대립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로 이기심 때문이다. 자기고집만 앞세우고 역치를 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과 편법,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은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모든 죄의 시작은 수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이기심에서 나오며 갈등, 타락, 시기, 교만 등도 모두 그러한 이기심의 열매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

면 로맨스, 남이 큰소리로 얘기하면 몰상식 내가 하면 유쾌한 대화, 남이 자기의견만 주장하면 고집불통 내가 하면 뚜렷한 신념, 남의 잘못은 큰 허물이고 내 잘못은 흔할 수 있는 작은 실수, 이와 같이 이기심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한다.

이기심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다. 남이야 어떻게 나만 편하고, 나는 손해 봐서는 안 되고, 나는 예외고, 나는 언제나 옳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도 어쩌면 이기심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기심을 버리는 과정일 것이다. 특히 우리 진언수행자에게 이기심은 수행을 막는 가장 큰 마구니가 아닐까 생각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

기도는 내 안의 불성 밝히는 일

촛불은 부드러운 미풍에도 꺼집니다. 여서 헤어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얻어진 것은 그 무엇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스스로 터득한 것은 결코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내면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기도 또한 반딧불이처럼 자기 안에 불성을 밝히는 일입니다. 밖에서 인연된 것은 무엇이거나 쉽게 소멸되고 흩어집니다. 사람관계도 밖에서 맺어진 것이

되어 행구는 횡수도 줄일 수 있다.

전기 밥솥에 감자 찌기

먹기 좋게 잘라 물에 담가 둔 감자를 알루미늄 포일로 단단히 싸서 전기 밥솥에 밥을 할 때 같이 넣고 찌면 찐 감자가 된다. 밥이 다 지어지면 폭신한 찐 감자가 완성된다.

오징어 겹질 벗기기

물오징어는 맨손으로 만지면 미끌미끌하여 겹질을 벗기기 어렵지만 목장갑을 끼고 다듬으면 쉽게 벗겨진다.

냉동식빵을 갈아 빵가루로

빵가루가 없을 때는 냉동실에 보관해 둔 식빵을 활용하면 된다. 냉동 식빵을 강판에 갈기만 하면 완성. 빵가루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완숙 토마토 겹질 벗기기

완숙 토마토는 겹질을 벗기기가 어렵다. 이 때는 완숙 토마토를 하룻밤 정도 냉동실에 넣어 얼려서 흐르는 물에 씻으면 물에 닿기만 해도 겹질이 깨끗하게 벗겨진다.

생활상식

달걀 흰자와 노른자는 뒤집개로 분리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할 때는 뒤집개를 사용한다. 볼에 걸쳐 놓은 뒤집개 위에 계란을 깨면 흰자는 뒤집개의 구멍 속으로 빠져 나가고 노른자만 남는다.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깨질 염려도 없다.

계란을 예쁘게 삶기

계란을 삶을 때 노른자가 가운데로 오도록 물을 끓을 때까지 젓가락으로 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보다 간단한 방법은 물에 소금을 약간 넣는 것이다. 번거로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요리가 즐거워진다.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쌀 씻기

날씨가 추워져 물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손에 상처가 나서 물을 피해야 할 때는 거품기로 쌀을 씻는다. 거품기를 사용하면 쌀겨가 더욱 빨리 분리



불교상식④

삼독심(三毒心)

불교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의 근원으로 탐(貪), 진(瞋), 치(癡), 그러니까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세가지 독(毒)의 마음이라 해서 삼독심(三毒心)이라고 합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은 모든 집착의 뿌리이며, 이 근본 미혹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삼독심은 중생의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고 해치며, 지은 공덕을 손상시키는 악의 근본이자 번뇌의 근본이라 합니다. 이 무서운 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의 고통을 면치 못한다고 하죠. 자, 세가지 무서운 독, 삼독심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윤우채 기자

이달의 추천도서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목경찬 지음/ 조계종 출판사



불교가 서양에 소개되었을 때, 불교를 철학으로 볼 것이니 종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다.

서양인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연기, 사성제, 무아론, 삼법인 등은 기독교 신학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때문에 불교라고 하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저자가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불교를 조망한다. 믿음, 하심, 발보리심, 기도의 힘 등을 경전, 영화 이야기 등을 통해 풀어낸다.

따라서 이 책은 불교가 종교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불교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더불어 신자로서 어떻게 믿고 행동해야 할 지에 대한 대목 역시 책을 통해 소개된다.

한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황명찬 지음/ 지혜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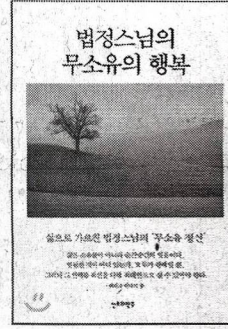


불교가 그러하듯 『법화경』은 인간에 대해 말하는 가르침이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고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우기는 어렵다. 저자에 따르면 『법화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경전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법화경』은 불교 경전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아니다.

그렇지만 『법화경』은 불교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기에 불자들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행복

장해민 지음/ 산하와 진주



살아 생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법정스님이 아무리 '무소유'를 강조하더라도 『무소유』라는 책은 꼭 소유하고 싶다고. 이 말

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정신과 반대로 청빈과 겸손 그리고 비어움을 강조한 법정스님의 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현대인의 심금을 울렸다.

『바보 노무현』의 저자 장해민이 이번에는 법정스님의 종적을 쫓았다. 법정스님이 살아온 길과 생전에 스님이 행했던 가르침을 총 5장에 걸쳐 수록했다.

저자는 법정스님이 부처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거쳐간 공간을 뒤따른다.

부처님나라 개구쟁이들

이봉직 지음/ 운주사



법당에 앉은 부처님은 근엄한 모습하면서도 온화한 모습이다. 과연 동심의 세계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그려질까.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어 문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는 『부처님 나라 개구쟁이들』에서 동심을 통해 본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다.

부처님이 '열장'이라서 좋다는 아이, 스님과 야구를 통해 친해진 아이, 부처님이 곱슬머리라서 좋다는 아이 등 동심은 천진난만하기만 하다. 동심을 자극하는 그림과 함께 수록된 동시들을 통해 불심을 느낄 수 있다.



삼 인 삼

동원시장점 가-42호 02. 499-9006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길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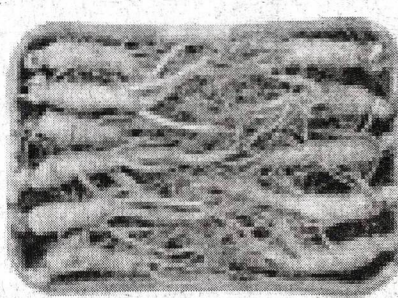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텐)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03-24 동원시장내 가-42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유임

3월 30일 종의회서 만장일치로



▲ 3월 30일 오전 구인사에서 열린 천태종 제86차 종의회 본회의의 장면.

천태종 제15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유임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는 3월 30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인광당 5층 회의실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6차 정기총회 본회의를 열고 '총무원장·감사원장 추천·임명 동의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도용 종정 스님은 제15대 총무원장에 4월 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신임 감사원장에 현 감사원장 훈광 스님을 추천한 바 있다. 임명장 수여식은 3월 31일 봉행

될 예정이다.

이날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종의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직후 인사말에서 "지난 4년 임기를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종정 예하를 모시고, 사부대중과 하나 돼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훈광 스님도 인사말에서 "임명 동의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종정예하를 모시고 종단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의회는 또 총무원을 비롯해 종단 각 부서 및 산하기관들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10억 8,590만 5,976원을 심의, 의결했다.

종의회는 앞서 28일 오전 9시 개회, 이틀간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와 산하단체의 예·결산과 중무행정을 심의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총무원 총무부·교무부·교육부·금강신문·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재무분과위원회는 종단 예산·총무원 재무부·복지법인·나눔여하나 퇴기운동본부, 법제분과위원회는 감사원 예·결산 및 증원증빙계정안을 각각 심의했다.

진각종 초전법륜지 기념정 완공, 4성지 성지화 착수

2010년 열반지 성도지 등에서는 특별교화프로그램 전개



▲ 포항 이송정에서 열린 기념정 헌공불사에서 진각종 사부대중들이 헌관제막을 하고 있다.

진각종이 종단 정체성 강화를 위한 4성지 성역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4월 2일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최초설법지인 포항 이송정에 초전법륜지 기념정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헌공불사에는 진각종 도훈 총인을 비롯해 성초 종의회 의장, 통리원장 혜정 정사, 교육원장 경정 정사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훈 총인은 법어에서 "이 곳

은 회당 대종사가 심인법을 전하기 위해 최초로 설법을 하였던 초발심의 땅"이라며 "진언행자들은 회당 종조의 뜻을 이어 받아 심인정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하라"고 당부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오늘은 회당 종조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기 위해 서원을 세우는 날"이라며 "모두가 참된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담은 넓은 심인의 그릇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진각종은 2010년 계획으

로 종단 4성지인 탄생지 울릉도 금강원, 성도지 대구 최정심인당, 최초설법지 포항 이송정, 열반지 대구 불승심인당 성역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념정 건립을 시작으로 대구 최정심인당과 불승심인당에서는 특별 교화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탄생지 울릉도 금강원에서 회당 종조 탄신기념사업 등이 펼쳐진다.

불교출판문화협회, 특별강좌
'고전과 미래' 주제 4월 13일
~5월 13일 매주 화, 목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이하 불출협)가 불교출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자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불출협은 '고전과 미래'를 주제로 4월 13일~5월 13일 매주 화, 목 오후 7~9시에 동국대학교 총무로 영상센터 신관 101호 세미나실(한옥마을 입구)에서 강좌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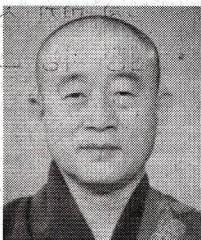
첫 번째 강좌는 4월 13일 윤창화 대표(민족사)의 '불교출판을 성찰한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개강식과 함께 불출협회장 지홍 스님과 김윤길 동국대 출판부장의 특강 오리엔테이션도 마련됐다.

이후에는 △2강(4월 15일): 미래의 출판은 지식콘텐츠 사업이다(1)(유재건 그린비 대표) △3강(4월 20일): Social Publishing 플랫폼은 무엇인가(김종민 前 청와대비서관)

수강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한정되며 신청접수는 최승천 불출협 사무국장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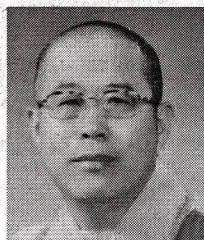
신청접수 010-9139-7645, hgscs@hanmail.net.

총무원장 및 감사원장 이력



정산 스님
(총무원장)

△1969년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득도
△2005년 2급(종사) 법계 품수
△재무부장·사회부장·총무부장·교무부장
역임
△종의회 부의장·2대 포교원장·총무원 부원장
역임
△제9~12대 감사원장 역임 △제13대 종의회
의장 역임
△대구 대성사·서울 관문사 주지 역임
△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 이사(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대표
이사(현)
△현 천태종 총무원장(14대)



훈광 스님
(감사원장)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득도
△2005년 3급(중대사) 법계 품수
△동국대 교육대학원 수료
△제8~11대 종의회 의원 역임
△대구 대성사·서울 성통사·부산 삼광사·
서울 관문사 주지 역임
△교무부장·규정부장 역임
△총무원 부원장 역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이사
역임
△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 이사(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현) △현 천태종
감사원장

불교경제인연합회 6월 15일 출범

준비위 위원장 구자선 외 경제인 불자 300여명

300여명의 경제인 불자들이 연합회를 창립하고 도덕 경영을 통한 생활불교 실천과 불교 중흥을 모색한다.

'한국불교경제인연합회(가칭)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구자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는 3월 22일 가진 제1차 창립준비위원회 의에서 오는 6월 15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3월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임장수 창립준비위원(교정인불자 회장)은 "한국불교경제인연합회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등 5개 종단(향후 추가 가능) 소속 신도 300여명으로 구성되는 범불교적인 실행단체"라고 설명하고 "현재까지는 약 200명의 회원이 모집됐는데, 창립예정일인 6월경에는 300명까지 모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동국대 CEO과정

을 수료한 경제인 40여 명도 포함돼 있다.

경제인연합회의 창립은 2년 전부터 조심스레 진행돼 오다 올해 3월 4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립준비위원 20명을 선출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실행활동뿐 아니라 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연계한 유통·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여기서 창출된 이익을 불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쓸 계획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경제인 불자들을 한데 묶는 실행단체에 대한 논의나 추진이 지엽적인 차원에서 수차례 시도된 바 있으나 가시화 된 경우는 없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불교경제인연합회 결성은 각 종단과 지역을 두루 포함한 규모 있는 실행단체라는 점에서 교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사이버 정법지킴이 교육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

사이버 공간의 정법 지킴이 종교평화 블로거를 양성하는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 기초부터 시작해 누구나 인터넷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강의내용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4월 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인 미디어 시대 종교평화를 지키는 '종교평화 블로거'를 5월 8일~7월 16일 12주간 매주 금요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교육은 종교차별 근절과 종교평화 수호를 위한 불교계 내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글쓰기 △사진편집 및 동영상 제작 등이 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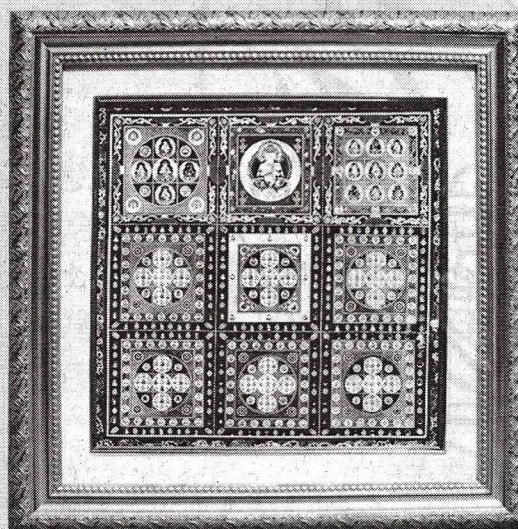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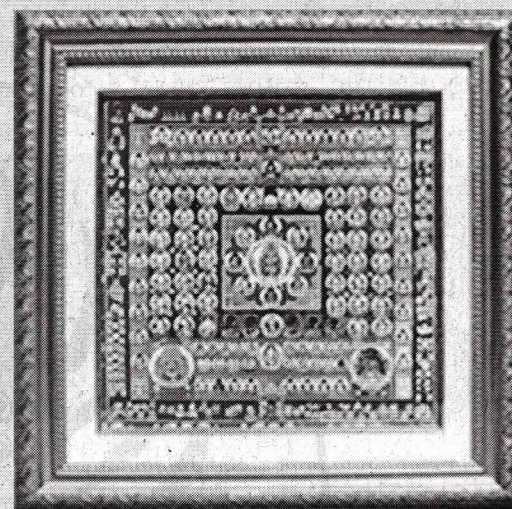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가대비야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말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존이 모여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에게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생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연경신불등 모두 1,461존이 모여져 있습니다.

* 구성표

-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불교총지중

불교총지중

‘부처님오신날’ 봉축 일정 확정

4월 20일~ 5월 21일까지 행사 다양



▲ 연등법회 전경

연중 가장 큰 불교축제이며 국민행사로 자리 잡은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기간이 다가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을 봉축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봉축준비에 들어갔다. 전국 사찰에서도 봉축연등을 제작하고, 등접수를 시작하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손길을 움직이고 있다. 올해 봉축표어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다.

올해 봉축법요식은 부처님 오신날 당일인 5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봉행된다. 연등축제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조계사 앞길과 인사동, 종각사거리, 청계천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진행되며,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실시된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의 연등행렬은 5월 16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동국대학교 운동장을 출발해 종로

를 거쳐 조계사 앞까지 이어진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동국대에서 사부대중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연등행렬이 끝난 후에는 서울 종로 종각사거리 보신각 앞에서 화합한마당 행사가 진행되며, 하늘에서 종으로 장식한 연꽃비가 뿌려질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시청 앞 점등식은 4월 27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거행된다. 이밖에도 어울림마당(5월 9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 전통등전시회(5월 14일~5월 23일, 서울 봉은사), 연등놀이(5월 15일 오후 7시~9시, 조계사 앞길, 인사동), 외국인 등단들기 대회(5월 16일 오후 2시~5시, 조계사 앞길) 등 불자·국민·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부처님오신날의 뜻을 되새길 예정이다.

봉축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포스터를 공개하고 전국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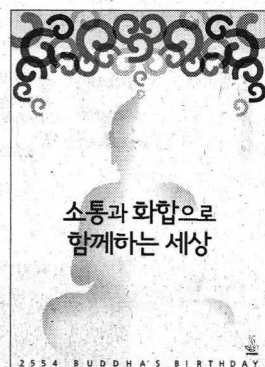
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내국인용 3장과 외국인용 2장으로 제작된 봉축포스터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란 표어에 맞게 부처님과 연등,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형상화했다. 봉축포스터는 전국 사찰과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배포되어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의미를 널리 알리게 된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불기 2554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봉축행사와 연등축제에 회원 종단이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단협은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권의 스님들을 초청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통 등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사회적 소통과 화합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한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풍성한 봉축행사로 마련될 전망이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봉축포스터 제작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오는 5월 21일(음력 4월



8일)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난 3월 31일 봉축포스터와 연등축제 포스터

를 제작 발표했다. 봉축포스터는 총 3장으로 올해 표어인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중심으로 부처님과 연등,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각각 형상화했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연등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는 국문과 영문으로 따로 만들었다.

봉축위원회는 이번 제작된 포스터를 일선 사찰과 신행단체에 배포해 축제분위기를 북돋을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봉은사 첫 공식 회동

명진스님 기존 입장 변함 없어



▲ 명진 스님이 봉은사 법왕루 일요법회에서 설법하고 있다.

총무원 집행부와 봉은사 주지 스님이 중앙총회의 직영사찰 지정으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3월 27일 오후 4시20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주지 명진스님과 회동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총무원 집행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교계 여론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파국은 불교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늘 모임은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직영사찰 지정 철회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명진스님이 종진스님들과 교계 NGO·신행단체장의 중재에 이어 집

행부의 회동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4월 11일 일요법회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로 중단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향후 모든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4월 11일 명진 주지 발언 관련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에서 “직할교구 소속 공찰인 봉은사 직영 전환이라는 중단 내부 결의에 맞서 중단 대표자를 비롯한 종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행위가 정도를 넘어 매우 위험한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담스님은 “확인되지 않은 일, 이리 저리 떠도는 말, 분별과 편견에 사로잡힌 말들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무책임하게 외치기 보다는 종단 내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해 봉은사는 총무원에 봉은사가 “조계종 총무원과 이동관 청와대 수석은 명진 스님에게 법적 대응 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봉은사는 12일 ‘4월 11일 조계종 총무원 논평에 대한 봉은사의 입장’에서 “총무원이 ‘확인되지 않은 일’ ‘허위사실’ ‘거짓주장’ ‘비방’이라고 치부한 명진 스님의 발언은 총무원장 자승스님(2009년 11월 30일)과 기획실장 원담스님(2010년 3월 27일)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자승·원담 스님이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은사는 “정치적 외압의 당사자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거짓말로 일관하다 급기야 사석의 농담으로 치부하고, 자승 스님은 일언반구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봉은사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영국 거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 날, 회유·협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봉은사 직영 전환에 한나라당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고 보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봉행한다

4월 17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4월 17일 조계사에서 1만1천여명 참석하는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가 봉행된다.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추진위원회(수경, 해자, 명진, 퇴후, 법륜 스님, 임화웅)가 4월 17일 오후 2시 조계사 및 우정국로에서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온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다.

추진위는 3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장 대운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3~4개월이 고비”이라며 “신록사 부근에도 100여대의 중장비를 동원해 24시간 일새 없이 강을 훼손하는 등 정부의 밀어부침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불교계가 앞장서 mb정부의 4대강 사업 허구와 생명 파괴의 실상을 알려내고자 한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이 아니라 법국민 여론을 모아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난날 우리의 탐욕으로 부터 발생한 자연과 생



▲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추진위원회가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의 위기를 참회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륙대재에는 4대강 실상 소개 영상, 조계사 화계사 합창단 공연, 생명의 강을 위한 서원의 북소리, 삼귀의, 반야심경, 전조계종 교육원장 청하 스님 고

불문,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 여는 말씀, 천도익, 신경림사인 시낭송, 안치환 공연, 수경스님 닫는말, 운문사 동학사 학인스님의 생명살림 결의문 낭독, 참가스님 서원의 2배 순으로 진행된다.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순길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

밀교사상사개론

국판 / 책가 15,000원 / 불교출판문화연구소

육자대명왕전설(육마니반야)의 유래와 공덕을 철학경전으로 본 것을 지나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번역국판 / 책가 7,000원 / 불교출판문화연구소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불교, 교양으로 읽다

국판 / 책가 15,000원 / 민족사

한국불교의식의 대명사인 천수경에서 왜 처음과 끝이 전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비법을 밝히고 있으며 본심요점을 통해 누구든 성불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국판 / 책가 8,000원 / 운주사

사찰순례

신라 창건 밀교신앙 유포처 무안 총지사터

‘총지’ 모든 것 지닌 비장(秘藏) 의미

‘총지’는 모든 것을 다 지녔다는 비장(秘藏)의 뜻이다. 밀교 용어로 다르니 (진언)를 의미한다. 총지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밀교신앙을 널리 선포한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지사는 신라의 밀교승으로 대당 구법 순례를 떠났던 혜통이 665년에 개산했다고 한다. 혜통은 해일, 명랑과 함께 중국에 건너가 당밀(唐密)을 공부한 역사적 인물이고, 개산 시기인 665년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이므로 그의 총지사 개산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총지사는 처음 백운산에 창건되었으나 고려 현종 7년(1016)에 화재로 소실되어 승달산 기슭으로 옮겨 중창했고,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된 것을 재차 중건했다. 지금 총지마을로 불리는 몽탄면 대치리 일대가 모두 총지사의 사역이었었는데 승려 800여명, 승방 200동에 암자가 9개에 이를 정

세웠다고 한다. 총지사의 소 한 마리가 그곳으로 건너 온 꿈을 꾸고는 세웠다고 하니 이미 그 이전에 총지사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간다라인 금지국과 원나라의 스님이 이곳을 찾은 까닭은 서해안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또 산 이름이 승달산(僧達山)이 된 것은 원명의 제자 500여명이 그를 찾아 이곳으로 와서 깨달음을 이루었기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이는 당시 서해안 지방과 다른 나라들 간의 교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직 총지사터의 본격적인 발굴작업이 안되어 그 사료적 전거나 증거



▲ 석장승만 외롭게 남아있는 총지사터.

무렵에 또 불타서 사라진 기록은 남아있다. 그런데 사라진 까닭이 명당으로 소

당도했다. 지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곳이야말로 조선 팔도에서 제일가는 명당 터

를 비롯하여 800여 명을 헤아리는 스님들이 모두 결사반대를 했다. 그러나 임면수는 법당 뒤뜰의 담장 너머로 허물고는 거창하게 묘역까지 조성하여 아버지의 유골을 이장하고 말았다. 참다못한 젊은 스님 몇이 화풀이를 겸해 참나무 말뚝을 깎아서 불태 그 묘에 박아버렸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임면수가 노발대발하여 절을 모조리 허물어버리겠다면서 승려들의 퇴거를 종용했다.

스님들이 불응하자 강제로 승려들을 끌어내고 가북들을 시켜서 사찰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 스님들의 항거는 거셌다. 죽기를 작정한 스님들은 함께 법당으로 들어가 염불을 하며 꿈쩍도 않았다.

임면수는 강제로 끌려나와 인근에 있는 법천사로 보내진 일부의 승려들을 제외한 기백 명의 승려들을 절과 함께 불살랐다고 한다.

있는 2기의 돌장승으로, 절의 영역 표시 기능과 더불어 경내에서의 수렵·어로 등의 금지를 알리며 잡귀의 출입을 막는 수호신상의 구실을 했다. 여기서 동북방 500m 계곡에 폐사(廢寺)된 절터가 남아 있다. 남장승은 높이 145cm, 폭 95cm이며 여장승은 높이 172cm, 폭 85cm이다.

거대한 화강석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려 아무런 장식도 없는 민둥머리와 이마, 커다란 왕방울 눈, 우뚝 솟은 주먹코와 작은 입이 조각되어 있다. 두 장승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나, 남장승은 외수염을 하나 더 조각해 두었다.

장승의 앞에는 각각 넓직한 판돌의 제단이 놓여 있으나, 장승과 관련된 의례는 전하지 않고, 다만 할머니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소원을 비는 곳이라 한다. 조선 현종 7년(1666) 지금의 총지사를 중건하면서 함께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장승은 사찰(寺刹) 입구에 세워져 잡귀(雜鬼)를 막고 사찰경내(寺刹境界)에서 살생(殺生)을 금하며, 사역(寺域) 경계를 표시한 신앙석상(信仰石像)으로서 수문신(守門神)·벽사신(벽邪神)·경계신(境界神)의 역할을 한다.



▲ 승달산 자락의 총지사터

도로 대참이었다고 한다.

다른 일설도 있다. 인근의 법천사를 신라 성덕왕 때인 725년 서역(西域) 금지국(金地國)의 정명(淨明)스님이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총지사도 그 무렵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바닷길로 들어온 서역의 전법자가 창건한 절이라면 고려 때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기존의 통설을 깨는 사적이 될 수도 있다.

인근의 목우암은 고려 원종 5년인 1264년 원나라의 원명(圓明)스님이

로 내세울 유구조차 없지만 운주사의 비로자나불상군, ‘옴마니반메훔’ 숫막새, 총지사의 사명, 인근 법천사의 창건 유래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지역에 밀교가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에는 운주사 관련 논서 가운데 밀교적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

아무튼 총지사의 창건은 모호하지만 고려 현종 7년인 1016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폐찰이 된 것을 다시 복원하였으나 순조 10년인 1810년

665년 밀교승 혜통 개산 설 순조때 방화로 소실, 터만 남아

문난 총지사 뒷산에 충청도 현감을 지낸 임면수가 아버지의 묘를 썼기 때문이었다. 절 뒤에 묘를 쓰자 스님들이 이를 반대했고 그러자 임씨 문중에서 절집을 불태워 버린 것이다. 총지사의 폐사에 관해 이처럼 여처구니 없는 사연이 전한다.

▶ 총지사 폐찰 일화

총지사는 절의 규모 못지않게 불당 건축의 정교함이 호남지방에서 으뜸이었다고 하는데, 1810년(순조 10년) 방화로 전소되기 전까지도 장성 이남에서 출가하는 승려들의 도승지(度僧地)였었다.

당시 충청도 석성현감을 지낸 임면수(林勉洙)는 풍수지리에 미쳐 이른바 명당 터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듯 싶다. 그가 내노라하는 지관들을 거느리고 명당 터를 찾아 삼남 일대를 뒤지다가 마침내 승달산 기슭에

라고 입을 모았다. 지관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임면수는 그 곳을 대뜸 선친의 묘터로 결정해버리고 만다. 당연히 주지 스

▶ 총지사지석장승(總持寺址石長牲) 무안군 민속자료 제23호

총지사터 입구 양옆에 나란히 서



▲ 총지사터 석축

▶ 총지사터 가는길

전남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의 총지사터를 가려면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 나들목으로 나가 무안읍 방향으로 300m 쯤 가다가 첫 삼거리에서 16번 도로로 좌회전해야 한다.

몽탄면 소재지를 지나 3km 남짓이면 대치마을이다. 우회전하여 500m 가면 길옆 양쪽에 돌벽수가 있으며 대치리 노인회관이 있는 넓은 곳에 자동차를 세우고 오른쪽을 바라보면 그곳이 절터이다. 공터에서 절터까지는 500m 남짓, 절터에는 축대만 남아 있을 뿐 아예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아 주춧돌 자리조차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총지종 보리자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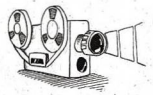
천은사 보리자(7mm)를 사용하여 보리자 108염주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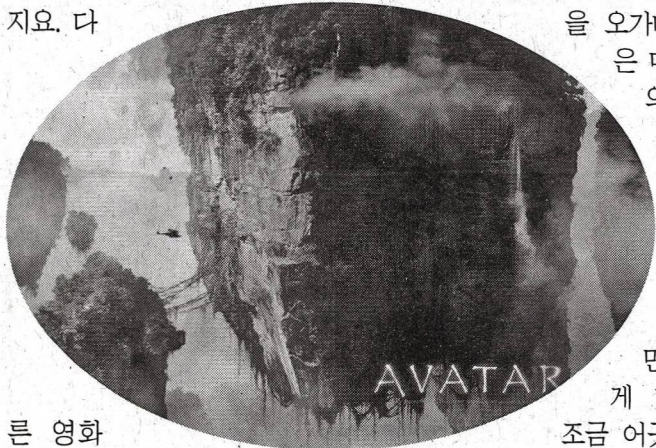


영화에서 불교보기 ⑩ / 화엄사상 보여준 〈아바타〉

하나는 일체와 통하고, 일체는 그 하나와 소통

3차원 영화인 〈아바타〉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극장에서 나눠준 검은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마법의 안경은 관객을 다른 세계로 이동시켜줍니다. 어두운 객석에 앉아있던 관객은 갑자기 판도와 행성으로 이동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커다란 새 이크란을 타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이마에 뿔이 솟은 괴물에게 쫓기기도 하고, 에이와 나무 홀씨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검은 안경은 마법을 일으키는 신령스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답답하다고 안경을 벗으면 화면은 다시 2차원으로 돌아가 평평하게 보입니다. 검은 안경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를 만드는 기술도 다른 어느 영화와는 다르겠지요. 다



른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지 않는 걸 보면요, 영화와 안경 사이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아바타〉는 여러모로 참 신기한 영화입니다. 스크린과 객석 사이에 검은 안경이 끼어들면서 3D 영화의 신기원을 열었는데, 그런데 내적으로도 다양한 안경이 존재하는 영화입니다. 기독교의 안경을 낀 이에게는 자연숭배를 부추기는 몸술 영화로, 불교렌즈를 갖고 있는 이에게는 화엄사상을 설명한 불교영화로, 보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영화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각자가 갖고 있는 안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신자로서 불교인의 렌즈를 낀 단연 이 영화를 불교영화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첫마디가 '완전 불교영화다'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영화를 불교영화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바타〉라는 제목부터가 불교적입니다. '아바타'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화신불'을 의미합니다. 화신불(化身佛)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의 몸입니다. 응신불(應身佛)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불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부처님은 법신불의 아바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는 제이크라는 남자와 그의 아바타가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제이크는 본체라고 할 수 있고, 판도와 라는 행성에 사는 나비족의 모습을 한 생명체는 제이크 설리의 아바타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특이하게도 본체가 아닌 아바타의 손을 들어줍니다. 제이크와 아바타의 삶을 오가며 살았던 주인공은 마침내 제이크로서의 삶을 폐기하고 아바타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은 영화의 스토리 상으로는 전혀 이상할 것 없지만 영화가 즐기게 했던 주장에서는 조금 어긋납니다. 영화 속에서 나비족의 입을 빌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게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꿈꾸는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주인공으로 하여금 아바타의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에 집착하면서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생겨야 한다고 교집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인도의 석가족이었으니 백인이냐 흑인 그리고 동북 아시아인들은 부처가 될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곧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상황만큼이나 아둔한 행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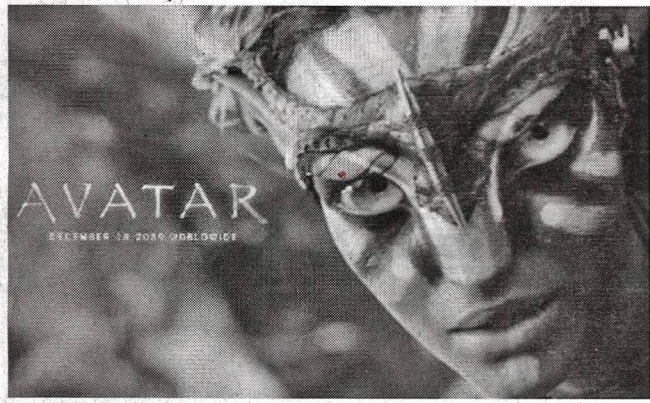
이 영화가 불교영화인 다음 이유는 나비족의 삶을 통해 본 화엄세계에 대한 상징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한 설법을 엮어놓은 책인데, 그만큼 부처님의 심오한 경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대한 경전 중의 가장 중심사상은 아마도 '일즉일체(一卽一切)일 것입니다. 하나는 세계와 통하고, 세계는 또한 그 하나와 통한다는 뜻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 공부 많이 된 사람에게는 이 사상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근기에는 좀 어려운 경전이라고 판단하고 아함경을 다시 설하였지만 이 경전이 불교 최고의 경전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심오하고 궁극적인 가르침을 영화는 참으로 쉽게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에는 대조적인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구인이고 다른 하나는 '판도라'라는 행성에 사는 나비족입니다. 영화의 중심 갈등은 지구인의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언옵테이늄'이라는 광물은 나비족이 터전삼아 살고 있는 거대한 나무 아래 다량 매장돼 있는데 이 광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구인이 '판도라' 행성을 점령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스토리에서도 나타나지만 지구인이 중요시하는 건 물질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지구인은 또한 탐욕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갖겠다'는 의미의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은 이 틈에 걸맞지 않게 변변한 집도 없으며 천 한 장도 걸치지 않았으며 그야말로 야생의 상태로 살아가는 종족입니다. 집은 그들이 터전삼아 살아가는 홀트리에 매달린 그물에서 자기 배이나 개구리 등 파생류처럼 물에 다양한 무늬가 그려져 있어 옷이 필요 없기에 그냥 벗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무소유의 삶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걸 갖춘 갖추었다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그들은 완벽해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비행기보다 더 자유자재로 하늘을 나는 '이크란'이라는 새를 친구로 뒀고, 땅 위를 차보다 빨리 제와 없이 달리는 '다이어호스'라는 말이 있고, 또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한 정



보를 갖고 있는 나무를 이용할 줄 압니다.

이 나무의 존재가 특히 나비족을 불교적으로 보게 합니다. 나비족이 살고 있는 판도라 행성에는 수 천억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뿌리가 서로 연결 돼 있어서 수많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광케이블로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가 곧 일체, 일체가 곧 하나'라는 불교의 화엄사상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비족은 이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감할 뿐입니다. 나의 에너지와 상대방의 에너지를 교감시켜서 한 에너지를 만들도록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 가진 자처럼 풍요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는 인간과 나비족이 다른 이유를 화엄사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는 전체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나비족은 이 사상을 이해하고, 또한 이 사상대로 살아가는데 반해 인간은 독불장군처럼 개인을 타자화시키고 있습니다. '떠도는 섬'처럼 외로운 영혼이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소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간의 망상이고 꿈꾸는 거라는 걸 영화는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바타〉는 분명 불교영화였습니다. 3D영화라는 최첨단 기술의 영화, 미국이라는 기독교적 배경에서 만든 영화가 불교영화라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시대를 앞서가는 종교로, 모든 다양성을 포괄하는 종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만다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처음이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도리에 맞고 언설이 정돈된 가르침을 펴라"

이것을 '전도 선언'이라 한다.

어느때 부처님은 이시파타나 미가다야에 머물고 있었다. 다섯 명의 비구들과 함께였다. 율장(대품)(1.1)에 '그때 이 세상에는 여섯 명의 성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이 조그만 교단이 언제까지나 그대로는 아니었다. 얼마 후 이 바라나시의 장자의 아들 아사라는 젊은 청년이 합류했고 그의 친구들도 잇따라 부처님에게 귀의해 출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사이엔가 그 작은 교단은 '십명의 성자'로 불어나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전도 선언(傳道宣言)'을 했다. 이것은 교단사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 경*(남전 상응부경전(4.5)

마의 율가미에 걸렸도다. 악마의 밧줄에 묶였도다. 사문이며, 너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에 부처님도 게로써 답했다.

"나는 인천의 세계에서 악마의 율가미로부터 벗어났다. 악마의 밧줄로부터 벗어났다. 마라여, 너는 이미 패배하였다."

그러자 악마는 '부처님은 나를 알고 있다. 부처님은 나를 간파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도망치고 말았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경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작은 경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경전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정연한 생각과 표현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율가미에서 풀려났다. 그대들 또한 율가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구절은 부처님이 전도선언에 앞서 자신과 제

정연하고 정확하게 법을 설하라

係蹄.한역 잡아함경(39.16)繩索)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파타나 미가다야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하고 제자들을 불렀다. 비구들은 '부처님이시여' 하고 대답했다. 부처님은 비구들을 향해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율가미에서 풀려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율가미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이제 율행*(遊行: to go on journey, c'trikam carati. 여행을 다니는 것. 傳道와 다르지 않음)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게 논리정연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법을 설하라. 그리고 진정으로 원만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때묻지 않은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들도 설법을 듣지 못한다면 금방 타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설법을 들으면 곧 깨달음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루벨라의 세나니마을(將軍村)로 갈 것이다."

그때 못된 악마(마라)가 부처님께 다가가 게(偈)로써 말했다. "당신은 인천(人天)의 세계에서 악

자들이 성취한 깨달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제 율행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여기서 '율행(遊行)'이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전도를 뜻한다. 부처님은 전도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같은 곳을 갈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혼자 다니라고 당부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논리 정연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법을 설하라. 그리고 진정으로 원만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이것은 설법을 할 때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친 대목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고 바른 표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부처님은 '나 또한 법을 가르치기 위해 우루벨라의 세나니마을로 갈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루벨라의 세나니 마을은 부처님이 과거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다. 부처님은 아직 그곳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 자신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설법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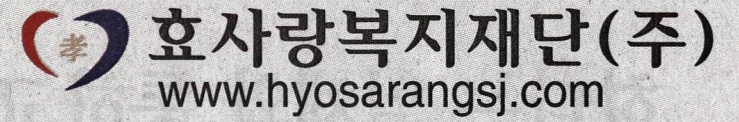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시
- ◆ 연습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 연습장소 : 총지사
- ◆ 연락처 : 이연수 단장

02)552-1080~3(대)





최고의 밀교 진언 의식으로 고인의 극락왕생 기원을 총지종 승직자와 효사랑복지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총지종 효사랑 390의 특징

1. 종교에 관계없이 가정의 모든 경, 조사에 사용가능 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하시면 1구좌로 1회에 한하여, 모든행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돌, 웨딩, 회갑, 칠순, 팔순, 상장례)
3. 가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양도, 양수가 가능한 상조(相助)상품입니다.
4.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이 할 때보다 체계적이고
품격 높은 토탈행사 서비스로 감동을 연출합니다.
5. 회원님이 직접 선택한 상품, 1:1 맞춤서비스 상품입니다.
6. 각 행사의 전문가가 회원님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 관리하여 드립니다.
(웨딩스타일리스트/라이프플래너/상장례지도사/가례복지사 등)
7. 각 행사 전문가의 세심한 배려로 감동적인 이벤트 상품행사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8. 각 행사 이후 철저한 고객서비스를 통한 감동을 실현합니다.
9. 납입금액은 불교총지종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안전합니다.
10. 매장시 지관, 이름 작명 필요시 자격증 소유자 보유(별도비용)
11. 전국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합니다.(TEL. 1600-4569)



◀황금운모수의

| 총지종 효사랑 390장례상품 |

품 목		규격 및 수량	품 목		규격 및 수량
임종전(앰블런스 24시간 대기)		본사와 반드시 상담 (임종 준비, 유언, 상장례절차, 행정절차)	공동		두건, 행전, 완장, 수질, 요질, 축문, 부의록, 향, 양초, 장갑, 차량리본, 명정, 훈백, 폐백, 운아, 관보, 다리니경, 보공, 일출, 한지, 탈지면, 베게, 습신, 결관바 등
임종후(고인운구)		100Km 이내	향로, 촛대, 잔대, 병풍, 돗자리, 조등, 초흔, 천막(자택 행사시)		대여
입관용품	수의 선택	황금운모수의	서비스	초흔, 수시(자택 행사시)	서비스
	관	오동나무관 4Cm 2단		염습, 입관	상장례지도사 2명
	수시	자택행사시 제공		도우미(1인 8시간 기준)	3명
	화장시	규격 유골함		회원이 수의를 준비했을 시 대체	도우미 1명(8시간), 꽃관보, 효사랑 유골함 중 한 품목 선택
전통의식	남	굴건제복 셋트	직계 상주(손자, 사위 불포함)		장의 차량
	여	복쪼끼, 치마저고리	직계 상주(손녀 불포함)		한국형 선도차 리무진+대형 리무진버스 왕복 200Km 제공
	백관	두루마기, 치마저고리	필요량		빈소용 제단꽃장식 설치
	현대식	검정양복 대여	직계 상주(손자, 사위 불포함)		효사랑 제단꽃 2단 장식 제공
대식	여	치마저고리(검정, 흰색)	필요량		안치실 · 염습실 사용료
					빈소, 사용료, 음식 및 편의용품
			기타		대행 서비스(비용 별도)
					제사상, 묘역(산역), 화장장 비용, 가족 봉안묘, 봉안당, 이장(개장) 상담



24시간 긴급상황접수

1600-4569

www.hyosarangs.com

NAVER

효사랑복지재단



월 3만원으로 경.조사를 품위있게

구 분 : 390만원

월불입액 : 3만원 (130회)

※1회차 부금 납입은 방문수금이 가능하며 약정한 계약 구좌에서 매월 결제일에 맞춰 CMS 자동이체로 출금처리됩니다.